



Max News

Contact us

- 영업팀 메일: E) sales.kr@maxlogis.com
- 김민호 이사: E) mike.kim@maxlogis.com H) 010-2988-6309 T) 070-5096-9367
- 장명수 차장: E) simon.jang@maxlogis.com H) 010-4437-5175 T) 070-5096-9387
- 김현미 대리: E) sienna.kim@maxlogis.com H) 010-9924-2772 T) 070-5096-9124

노선별 안내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미주 LAX/ORD/JFK 및 주요 노선 지역(ATL/DFW) BUP 프로그램을 진행

OZ 스케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BUP 작업 및 안정적인 Allocations 기반한 스페이스 제공

OAL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S OAL SVC (UA/DL/PO 등)에 대한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 지원

주요 미주 지역 외 캐나다(YYZ/YVR) 및 중남미 (MEX/GRU/BOG/SCL 외) 상품 서비스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JFK	OZ587	2245/0025+1 1545/1715 0055/0225	D2 D5 D1	DIRECT
	UA892	1650/1125	D46	SFO-EWR T/S (TRUCKING)
LAX	OZ284/OZ286/OZ282	1445/1210 1530/1025	D1234567	DIRECT
	YP101	1330/0720	DAILY	DIRECT
	UA892	1650/1125	D46	SFO T/S (TRUCKING)
SFO	OZ212	2050/1400	DAILY	DIRECT
	UA892	1650/1125	D46	DIRECT
DFW	OZ242/OZ244	2300/0315+1	D1246	DIRECT
	DL158 DL026 DL170 DL196	0935/0825 1845/1810 1925/1650 2005/1335	DAILY	DTW T/S ATL T/S MSP T/S SEA T/S
ORD	OZ242/OZ244/OZ248	2300/2240	DAILY	DIRECT
	DL158 DL170	0935/0825 1925/1650	DAILY	DTW T/S MSP T/S
ATL	OZ248	230/0345+1	D357	DIRECT
	DL158 DL026 DL170	0935/0825 1845/1810 1925/1650	DAILY	DTW T/S DIRECT MSP T/S

서울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AX	OZ284/OZ286/OZ282	2330 / 1725	D123456	DIRECT	작업일 17시	안범준 대리 (070-5069-9441)
SFO	OZ212	2050 / 1400	DAILY	DIRECT		
ORD	OZ242/OZ244/OZ248	2300 / 2240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장희원 사원 (070-5096-9101)
ATL	OZ248	2300 / 0345+1	D357	DIRECT		
DFW	OZ242/OZ244	2300 / 0315+1	D1246	DIRECT		
JFK	OZ587	2245 / 0025 +1	D2	DIRECT	작업일 17시	서현주 사원 (070-5096-9342)
	OZ587	1545 / 1715	D5		전일 17시	
	OZ587	0055 / 0225	D1		작업일 17시	

메일: us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 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 KE/OZ 국적사 중심으로 한 운임 안정화 주력 하에 보험세의 3월 미주 시장 전망

- 수에즈 및 파나마 사태 여파로 해상 운임 인상 조정 외 미 중/동부 지역 물류에 대한 In-land trucking 운임 인상 여파 전개
- 중국 시장 침체와 2월 비수기 시장을 겪으면서 LAX/ORD/JFK 등 국적사 중심으로 한 여 노선 별 운임 인상 유보 및 일부 인하 하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3월 시장 분위기
- 국내 로컬 시장 물동량에 별 다른 출하 계획 이벤트 없이 2월 중국 장기 연휴 영향에 따른 물동량 움직임이 불투명 한 상황 여파로 본격적인 중국 Sea & Air 의 전자담배 및 이커머스 움직임 미약
- 3월 10일까지 유보된 KE의 LAX/ORD 차터의 3월 하반기 본격적인 재운항 계획으로 전자담배/이커머스 화물에 대한 추가 운임 하락 전망 및 한국 발 미주 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 구도의 가속화 우려

** 항공사의 CBP 업무 안내에 불구하고 중국,동남아시아 및 한국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마약류 운반 사태 전개로 미 세관에 의한 화물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 발생

- 화물기에 선적된 화물의 전체가 장기 보류 되는 등, 화물 처리 보류에 따라 높은 Storage 비용이 발생 등 관계 화물 진행 대리점에게 예외 없는 Penalty 적용
- 미국 CBP/캐나다 CBSA 도착 화물 검색 강화 및 불법 화물 적발 시, 출발지 포워드어 불이익 (구상 청구 및 운송 규제)조치가 적용되기에 정확한 화물 품목 기재 및 신고 절차 필수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유럽 주요 지역(LHR/FRA/VIE/MXP)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진행

OZ 스케줄 및 주요 OAL(QR/TK/LH/CV)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지원

FRA/VIE에 대한 안정적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및 LHR/STN의 안정적인 스페이스 운영

중앙아시아 (ALA/TAS/IST) 지역에 대하여 OZ 및 OAL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원

서울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FRA	FRTR	OZ795/OZ775 OZ793	23:15-10:10+1 02:40-15:00/22:35-11:00+1	화 금 / 수 토 월 / 목	DIRECT
	PAX	OZ541	09:15-15:15	DAILY	DIRECT
LHR	FRTR	OZ793	02:40-22:00 / '22:35-22:00+1	월 / 목	STN T/S
	PAX	OZ521	12:25-18:15	월 수 금 토 일	DIRECT
VIE	FRTR	OZ775/OZ789/OZ795 OZ797	23:15-06:35+1	수 토 / 목 / 화 금 일	DIRECT
CDG	PAX	OZ501	1035-1700	월 수 목 금 토 일	DIRECT
MXP	FRTR	OZ789 OZ797	23:15-10:10+1 23:15-10:10+1	목 일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외항사 T/S	QR	QR8983 QR8981	0145-0605	수 금 일 토	DOH T/S *T/TIME: 2~4DAYS
	LH	LH8385 LH8387	02:00-08:00 02:25-08:50	금 월	FRA T/S *T/TIME: 2~4DAYS
	TK	TK6545	04:50-11:35 10:50-16:05	금 일	IST T/S *T/TIME: 2~4DAYS
	CV, C8	CV7223 CV7155 CV7226	07:25-14:20 03:10-11:05 07:30-14:40	목 토 일	ICN-LUX *T/TIME: 2~4DAYS
		C8 8111 C8 7113 C8 7737	04:10-16:00 06:40-18:40 13:35-05:25+1	월 수 일	ICN-MXP *T/TIME: 2~4DAYS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HR/STN	OZ793 (FRT)	0240 / 2200 2235 / 0625+1	D1 D4	DIRECT	토요일 15시 작업당일 17시	박주상 과장 (070-5096-9385) 박철희 대리 (070-5096-9389) 장예원 대리 (070-5096-9340) 진호연 사원 (070-5096-0003)
FRA	OZ793 (FRT)	0240 / 1500 2235 / 1100 +1	D1 D4	DIRECT	전일 17시	
FRA/VIE	OZ795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FRA)	D25	DIRECT	작업당일 17시	
	OZ775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FRA)	D36	DIRECT	작업당일 17시	
MXP/VIE	OZ789/797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MXP)	D47	DIRECT	작업당일 17시	

메일 : europa@maxlogis.com / 네이트온 : max_export1@nate.com / TEL : 02-3144-2289

** 수에즈/ 파나마 사태 고착화 이후 비수기 진입에 따른 보험세의 유럽 시장

- 수에즈 사태 등의 여파 이후 전반적 정세의 고착화로 시장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가운데 특성 노선에 대한 back-log 완화 및 국적사 및 OAL의 3월 운임 인하 계획 방향
- 중국 시장의 침체와 상대적으로 낮은 운임 진행으로 LHR/AMS 중심의 전자담배 및 이커머스 물량이 현저히 감소된 가운데 저가 지향의 중국발 SEA & AIR는 OAL T/S 로 우선 선적 처리 진행
- 비수기 진입에 따른 OAL (CV/QR/TK 등) 수요를 감안한 탄력적인 운임과 스페이스 관리 집중

서울

** EY HS CODE 필수 기입 안내

- 2월 29일 부터 EY로 진행되는 화물에 대한 HS CODE 필수 기입
- HS CODE 누락으로 현지 통관 지연 등 화물 처리에 불이익 발생 가능으로 HS CODE 재확인 요

** AY 러시아,벨라루스 착 화물 선적 금지 조치

-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AY를 통한 러시아/벨라루스 행 선적 화물 진행 불가
- MAWB & HAWB 상 CNEE 가 러시아,벨라루스를 포함하여, AWB 상 타 DEST. 이지만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벨라루스인 경우 선적 진행 불가
- 현지 세관 적발 시, 문제 화물의 SHIP-BACK 및 발생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청구 처리

** LO MAWB 기입 상 내용 중 우크라이나 정보 작성 기재 불가

- LO (폴란드항공)로 진행되는 모든 화물의 MAWB 상에 우크라이나 정보 기입 불가
- 폴란드 역외 회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행 화물 대행하는 과정에서 화물 처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원활한 선적 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장기 체납 창고로 문제에 따른 청구가 이슈화 되면서 LO 측에서 MAWB 상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 기재 시 진행 불가

** ET EU 화물 선적 진행 시, 반드시 FHL DATA 전송 시, HAWB 당 HS CODE도 기재 및 전송 필

** AY E-Commerce 패키징 불량 시 전량 off-load 및 Embargo 화물 적발 시 진행 불가

- 총기류(장난감 총, 연습용 목재 총 포함), RLI (UN3090,UN3480), 도검류, 폭죽
- 샴푸 등의 액체류 : MSDS 공항 검수 및 허가 득 한 후 진행

서울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주요 아시아 노선 (HAN/HKG/PVG)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운영

HKG (면세품/화장품 등)을 포함한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특가 및 스페이스 지원

OZ PVG 및 HKG BUP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및 서비스 제공

OZ 직항 이외 주요 OAL (SQ/LJ 등)에 기반하여 SQ 주요 운항 노선 및 LJ (TPE/BKK)에 대하여 다양한 노선 서비스 구축 확보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PVG	OZ0987 OZ0947 OZ0361 OZ0365 OZ0367	화,목,토,일 1540-1700 월,수,금 1335-1455 월~금 0905-1005 월~금 1410-1510 월~금 2000-2105	DAILY	DIRECT
	OZ745 OZ721	월~일 1950-2250 월~일 0900-1150	DAILY	DIRECT
	OZ967/OZ969	화,목OZ0967(1200-1455)/토(0940-1235) 금(2340-0235+1)/일(1345-1640) 화,수,목,금OZ969(2340-0235)+1/ 일(1040-1640)	화수목금토일	DIRECT
	OZ951	화,금,토(2345-0720)+1 일(0015-0720)	화금토일	HAN병합노선
	OZ933 / OZ383 OZ951 OZ933 OZ387 OZ951 / OZ387 OZ953 OZ953/ OZ387	월 22:00-00:50+1 / 월 2340-0230+1 화 23:45-02:35+1 수 22:00-00:50+1 목 0005-0300+1 금 23:45-02:35+1 / 2345-0235+1 토 23:45-02:35+1 일 00:15-0305+1 / 2355-0250+1	DAILY	DIRECT
NRT	OZ102 OZ104 OZ106 OZ108 OZ194 OZ198	월,화,수,목,금,토,일 0900-1120 월,화,수,목,금,토,일 1220-1440 월,화,수,목,금,토,일 1550-1815 월,화,수,목,금,토,일 1835-2100 화 0400-0620 수,일 1535-1800/ 금 1335-1555	DAILY	DIRECT
	OZ711 OZ713	09:45-11:30 14:00-15:45	DAILY	DIRECT
	LJ731	09:40-11:30	DAILY	DIRECT
TPE	OZ711 OZ713	09:45-11:30 14:00-15:45	DAILY	DIRECT
	LJ731	09:40-11:30	DAILY	DIRECT

서울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PVG	OZ947	1540 / 1700	D135	Direct	작업당일 18시	전나연 과장 (070-5096-9366)
	OZ987	1400 / 1520	D2467	Direct	작업당일 18시	전나연 과장 (070-5096-9366)
HAN	OZ933	2200 / 0050 +1	D13	Direct	작업당일 17시	강준환 사원 (070-5096-9869)
	OZ387/951	2345 / 0235 +1	D234567	Direct	작업당일 15시	
HKG	OZ745	1950/ 2250	DAILY	Direct	작업당일 18시	김정은 대리 (070-5096-9384)
	OZ967/969	2340 / 0235 +1	D25	Direct	작업당일 18시	
	OZ951	2345 / 0720	D2567	Direct	작업당일 18시	

** OZ 03월 중국 화물기 및 여객기 운항 안내

- 2월 준비를 마친 B767F 3월 투입 예정으로 TSN (3회) 및 YNT(3회)로 확대 운항 예정
- PVG 화물기 운항 편 경우 운항 편수 동일 유지 및 일부 편 출/도착 지연 예상으로 STD 별도 확인 필요

** JL (일본항공) 02월 20일 부터 화물기 재 취항

- 2024년 02월 20일부터 JL 의 화물기 (B767F) 운항 (ICN-NRT-TPE 스케줄 운항)
- JL6750 ICN-NRT ETD/ETA 05:55 / 08:15 (주5회 D23456)

** MH (말레시아항공) CHARGEABLE WEIGHT 반올림 적용 안내

- MH 본사 요청에 따른 C/WT 적용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부터 0.5단위 반올림 적용으로 변경 및 반영
- Ex.) 0.001KG→0.5KG / 0.501KG→1.0KG (IATA rule 3.9.4 volume weight 산출에서 근거한 개별규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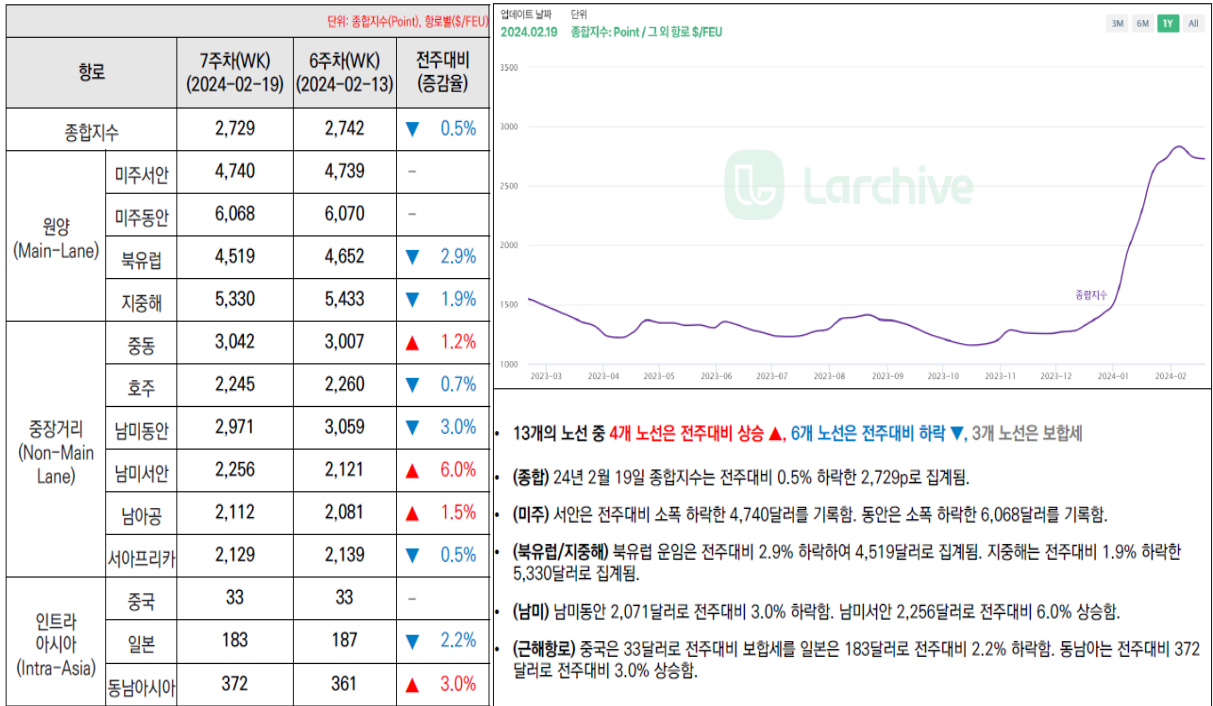
** KJ (에어인천) ICN-HAK-SIN 운항

- 2024년 03월 05일 부터 ICN-HAK-SIN 주2회 (D2,4)복항 운항
- KJ 517 ICN/HAK (01:20 / 05:25) – HAK/SIN (06:25 / 10:00)

부산

■ **해운동향 : 한국 컨테이너선 종합지수 (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 7WK**

✓ **미주 동/서안,유럽 소폭하락, 남미 소폭 상승, 근해항로 약 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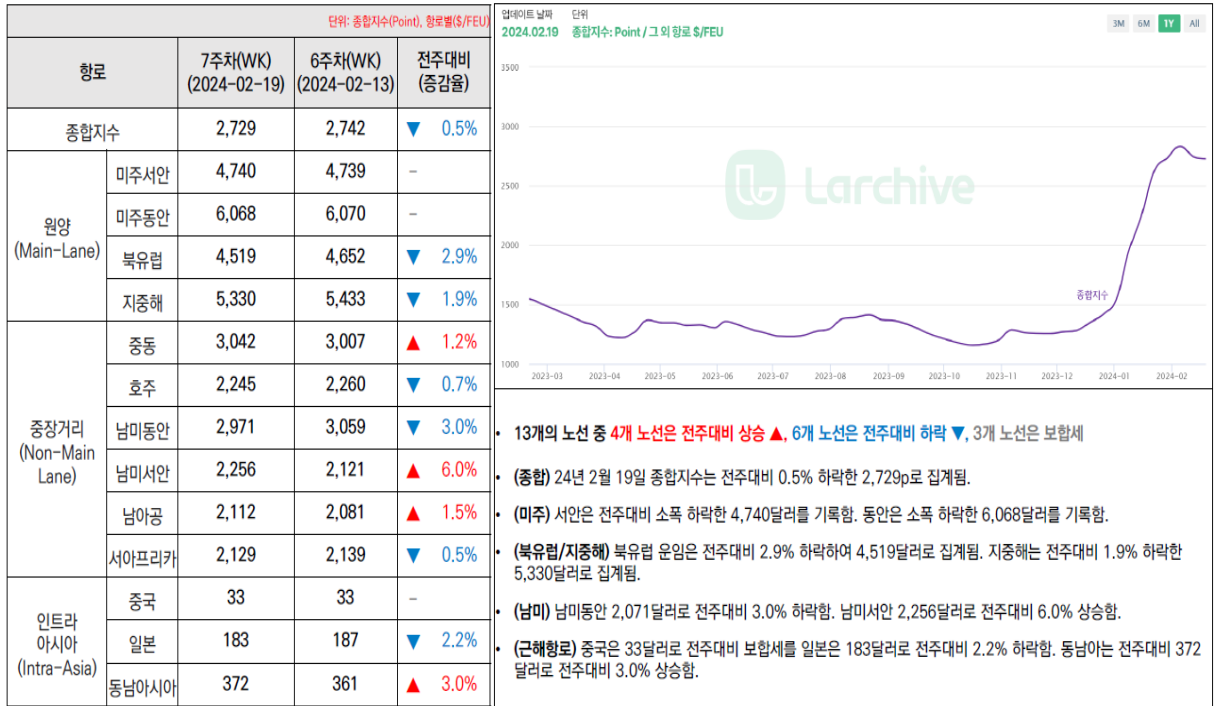
2) **해운동향 이슈**

• 부산항 동북아 '환적허브'위상 추락하나?
 글로벌 선사 부산항 '기간항로'제외...걱정 태산
 글로벌 선사들이 잇따라 부산항 신항을 '기간항로'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등에 따르면 먼저 머스크와 하팍로이드가 제휴한 해운동맹 '제미니 협력 (Gemini Cooperation)'이 '기간항로'에서 부산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니 협력은 유럽~아시아 항로에서 부산항과 일본, 베트남, 그리고 대만 등지에 직접 기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니 협력의 사업계획안에는 아시아 네트워크가 19 개의 주요 항구와 환적 허브로 통합된다. 환적 허브는 상하이항과 닝보항, 그리고 싱가포르항과 탄중 펠레파스항 등이며, 이들 항만에 71 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배치해 7 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 대만 등지의 항구에는 제미니 협력이 기존 피더선보다 규모가 더 큰 선박으로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미니협력의 일정표에 따르면 13 개 셔틀 서비스가 18 개 항구에 공급된다.

부산

■ **해운동향 : 한국 컨테이너선 종합지수 (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 7WK**

✓ **미주 동/서안,유럽 소폭하락, 남미 소폭 상승, 근해항로 약 보합세.**



2) **해운동향 이슈**

• 부산항 동북아 '환적허브'위상 추락하나?
 글로벌 선사 부산항 '기간항로'제외...걱정 태산
 글로벌 선사들이 잇따라 부산항 신항을 '기간항로'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등에 따르면 먼저 머스크와 하팍로이드가 제휴한 해운동맹 '제미니 협력 (Gemini Cooperation)'이 '기간항로'에서 부산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니 협력은 유럽~아시아 항로에서 부산항과 일본, 베트남, 그리고 대만 등지에 직접 기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니 협력의 사업계획안에는 아시아 네트워크가 19 개의 주요 항구와 환적 허브로 통합된다. 환적 허브는 상하이항과 닝보항, 그리고 싱가포르항과 탄중 펠레파스항 등이며, 이들 항만에 71 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배치해 7 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 대만 등지의 항구에는 제미니 협력이 기존 피더선보다 규모가 더 큰 선박으로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미니협력의 일정표에 따르면 13 개 셔틀 서비스가 18 개 항구에 공급된다.

대만

1) 지점소식

- 휴일 없음

2) 물류동향

대만 총통 선거로 인한 물류 영향 확인

2024년 1월 23일 대만 총통선거, 친미 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진당 당선인도 노골적인 현상 변경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극단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격인 경제협력 기본 협정 (ECFA) = 관세 우선 인하 선거전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12개 항목에 대한 ECFA를 중지 시키고, 향후 중지 항목 추가가 있을 것으로 우려 됩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세계 경제가 파괴되고, 대만 해협은 국제 무역의 중요한 허브로, 매년 전세계컨테이너 선적의 절반 가까이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전자 전기 부품에 생산 중심지입니다. 대중국와에 수출 비율이 대외무역의 40% 이상. 대만과 미국, 중국 모두 당장은 극단적인 관계 악화보다 현상유지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대만발 해상& 항공 물류 영향이 없습니다. 모든 대만 <-> 중국 화물 이상 없이 진행중이고, 스케줄 간편이나, 중단된 서비스는 없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대치 구도는 현 수준으로 유지, 미국과 경제 및 안보 면에서 더 밀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에바항공 노사 간 합의점 못 찾으면 춘절 기간 조종사 파업도 불사

타오위안 조종사 노조는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인 에바항공의 급여 및 근무 조건에 관한 미해결 문제로 인해 파업을 승인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월요일에 내려진 이 결정은 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항공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에바항공이 직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충분히 인상하지 않고 외국인 조종사를 불법으로 고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바항공은 조종사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불법적인 채용 관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조와 에바 에어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노조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설을 전후로 파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통지할 것이며, 장거리 항공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피하기 위해 에바항공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홍콩

1) 지점소식

GOOD FRIDAY(성금요일) - 3월 29일 휴일
 THE DAY FOLLOWING GOOD FRIDAY(성금요일) - 3월 30일 휴일

홍콩발 하노이/호치민 LCL Consol 진행

2) 물류동향

• Hong Kong Air Cargo 유럽 전자상거래 노선 개시

- 영국 런던 & 벨기에 리에주 간 신규 노선 개설

Route	Flight number	Time
Hong Kong – London Stansted	RH364	00:05 – 10:00
London Stansted -Hong Kong	RH365	12:00 – 09:30+1

Route	Flight number	Time
Hong Kong – Liege	RH375	00:05 – 10:40
Liege – Hong Kong	RH376	12:40 – 08:30+1

• JD 로지스틱스, 홍콩 및 마카오에서 자체 운영 특급 배송 사업 확대

- JD 로지스틱스는 2017년 JD닷컴의 자회사로 독립된 이후 홍콩 및 마카오에서 5년 이상 B2B, B2C 창고 및 유통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자체 운영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JD닷컴의 해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도 JD 로지스틱스의 서비스를 사용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IATA World cargo symposium 2024 홍콩에서 진행 예정

- IATA 에서 주최하는 World cargo symposium 이 3월 12일 부터 3월 14일까지 홍콩에서 개최.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URL 통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IATA - World Cargo Symposium \(WCS\)](#)

증경

1) 지점소식

- 안정적인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입/수출 및 국내운송 업무제공
- 반도체 생산공장 창고업무 외주 받아 고객과 화물 특성에 따라 Sorting 및 보관 Service 제공
- 다양한 Route 개발과 항공사 전략적 계획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항공운송 서비스 제공
- 충청지점 주요 핸들링 지역
CKG/CTU/WUH/CSX/CGO/XIY

2) 물류동향

- 중국 화물 무역수출입 통계 41.76만억 원 동기대비 0.2% 증가
- 전기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능 배터리 등 수출 주요제품으로 증가
- 충청 발 상해착 장강 바지선 운송량 증가, 기존 운항시간 30일 - > 15일 단축하여 운송효율 상승
- 충청발 3월 항공스케줄

YEAR /MONT H	DEPT	항공사	FLT TYPE		DIRECT / T.S	Route		MON	TUE	WED	THU	FRI	SAT	
			(P/C)	기종		출발지	도착지	FLT. NO.	FLT. NO.	FLT. NO.	FLT. NO.	FLT. NO.	FLT. N	
202402	CKG	CA439	P	B738	D	CKG	ICN	CA439		CA439		CA439		
	CKG	KJ2626	C	B737	D	CKG	ICN			KJ2626				
	CTU	KJ212	C	B737	D	CTU	ICN				KJ212	KJ212	KJ21	
	CGO	KJ252	C	B737	D	CGO	ICN		KJ252				KJ25	
	XIY	KJ2726	C	B737	D	XIY	ICN				KJ2726			
	XIY	O37003	C	B767	D	XIY	ICN	O37003						
	XIY	KE812	P	333	D	XIY	ICN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
		KE0328	C	77X							KE0328		KE032	
	XIY	CF201	C	B737	D	XIY	ICN		CF201	CF201	CF201	CF201		
	CKG	CI5998	C	747F	T	CKG	TPE			CI5998			CI599	
	TPE	CI0160	P	330	T	TPE	ICN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	CI016
		CI0162	P	330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	
	CKG	BR0678	C	B77X	T	CKG	TPE				BR0678		BR067	
		BR0160	P	781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	BR016	
		BR0170	P	333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	
	CKG	CX3261	C	74N	T	CKG	HKG			CX3261				
CX3265		C	74Y					CX3265			CX3265			
CX945		C	32Q							CX945				
CX929		P	32Q					CX929				CX92		

1) 지점소식

- 휴일 없음

2) 물류동향

- CARRIER: 아시아나(OZ) TSN-ICN 구간 2024년3월부터 매주마다 스케줄은 4회로 회복 됨.
TUE/FRI: 767-300 화물기(ETD/ETA: 1530/1710)
WED/SAT: 747-400 화물기(ETD/ETA: WED-1910/2050, SAT-1555/1735)
****3월1월,9일,15일,16일 스케줄 CANCEL**
- XINGANG에서 출발 해상 스케줄은 계속 DELAY 상향 발생되고 있고 보통 2~4 DAYS DELAY 예상 됨.
- 춘절 연휴 이후 3월은 보통 OFF SEASON이라서 운임은 인하 조정될 예상

하노이

1) 지점소식

- 항공 계약사 7C 및 OZ 직계약 운영 중
7C 12월 14일부터 기존 데일리 1대화물기에서 2호기 투입.
- 중국 - 베트남 국경 트럭킹 서비스 관련 타 물류사와 협력강화
- 중/장비 및 반도체 관련 장비 수입 통관 및 도비 작업 특화 강화.

2) 물류동향

- 하노이 발 항공 수출 메인 제조사인 SAMSUNG / LG 의 경우 기존 중국 향 항공화물을 항공선적 대신, 국경 트럭킹 위주로 진행 중. 이런이유로 항공스페이스여유가 있는 편
- 기존 국적항공사 화물의 경우에 저가 항공 (에어제주, 비엠텐, 뱀부등) 으로 진행되는 화물이 많은경향, 저가 항공의 스페이스는 항시 타이트.
- 해상 스페이스의 경우, 여전히 공급부족으로 타이트 하였으나, 현재는 여유가 있는편 , 인천항의 경우

3) 하노이발(노이바이공항) 인천착 3월 스케줄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DAY	FRIDAY	SATURDAY	SUNDAY
OZ0734 (P)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OZ (F)	OZ0388 / 04:20 - 10:15	OZ0934 / 01:50 - 10:00 OZ0384 / 04:30-18:05	OZ0390 / 04:20 - 10:15 OZ0952 / 04:35 - 13:35	OZ0934 / 01:50 - 10:00 OZ0388 / 04:20 - 10:15	OZ0390 / 04:20 - 10:15 OZ0932 / 04:35 - 13:30	OZ0388 / 04:20 - 10:15 OZ0952 / 04:35 - 13:35	OZ0390 / 04:40 - 10:35
OZ0730(F)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VN414 (P)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VN416 (F)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KE362 (F)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KE456 (P)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7C9206 (F)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7C9408 (F)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호치민

1) 물류뉴스

1. 호치민시, 락선녓 국제공항 2월들어 650편이상 항공편지연...급증하는 여객수요, 안개 때문
2. 베트남, 제조업경기 회복세 지속...1월산업생산지수 전년동기비 18.3% 상승
3. 베트남, 중국·미국 이어 한국 '3대 교역국' 2022년부터 2년 연속 유지중
4. 에어로케이, 청주~베트남 다낭 정기노선 신규취항
5. 베트남 전기차 빈패스트, 기능 결함으로 6천대 리콜조치
6. 베트남산 요소 600톤 한국으로 수출, 군산항 도착. 아톤산업 요소수 공급 확대
7. 일성 건설 - 230억원 규모 베트남철도 개량사업 수주

2) 물류동향

1. 북미항로 시황 호조로 선사들 운임 회복 및 서비스 강화

- 1월 물동량 20%상승 高운임 지속 되고 있음
- 파나마 운하 통과 제한 및 홍해 운항 중단 사태가 지속되며, 수요 강세와 선복 부족현상까지 지속되면서 시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물동량 증가율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수준을 웃돌고 있음
-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S/C 갱신을 앞두고 운임 회복에 박차를 기하며, 시황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
- 선사들은 이달 20' TEU당 USD600~1000의 GRI를 당행하였고, 물동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올해 1월 아시아 10개국발 북미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65만 TEU)
- 중국, 한국, 베트남 상위 3개국 모두 20%이상 신장하며 물동량 전체를 이끌었음
- 1위인 중국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97만9000TEU, 2위 한국은 22% 증가한 19만2000TEU, 3위 베트남은 22% 급증한 15만3000TEU로 집계됨
- 품목별 1위는 15만3000TEU(16%)로 가구, 2위는 기계류로 17만6000TEU(19%), 3위는 전자전기 15만1000TEU(16%)

2. 베트남, 1월 수출 336억달러 21개월만에 최대

-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올해 1월 수출액이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 2월 14일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4년도 1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늘어난 336억달러(약 44조9천600억원)로 집계 됐으며, 이는 월 기준으로 2022년도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임

1) 물류 동향

1) 홍해 후티반군 공격 줄었지만...해운사 우회 여전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민간 선박 공격이 다국적 함대의 공습 이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박들이 홍해를 우회해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유럽행 해상운임 4배로 폭증...탄소배출도 악화

홍해 사태로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음. 해상 운송은 전 세계 화물 약 80%를 담당하는 국제 무역 중추로서, 이 중 수에즈운하는 해상 물동량의 12~15%를 차지함

3) 예멘과 맞닿은 아덴만행 선박도 줄었음

아덴만에 입항한 선박 수는 지난해 12월 상반기 대비 63% 감소했음

1월 동안 희망봉 경유 선박은 일 평균 70척을 기록, 11월 평균 49척 대비 43% 늘었음

4) 공장가동 중단 등 물류 지연 사례 속출

운송 지연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차츰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는 기어박스 배송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12일부터 3일간 벨기에 공장 생산을 중단했음

5) 선사들 할증료·보험료 증액 가속페달

현재 각 선사별로 할증료와 보험료를 증액하고 있어 물류 비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 또한 UNCTAD는 지금처럼 희망봉 우회가 계속되면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음

선박 운항 거리가 늘어나는 데다 이를 만회하려고 가속 운행을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설명

독 일

2) 경제 동향

1) EU, '러 제재 회피' 中본토 기업 첫 제재 추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본토를 비롯한 제3국에 대한 신규 제재를 논의 중. 제13차 제재안 초안에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 3~4곳이 포함됐음. 대상 기업은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을 유럽에서 우회수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2) 휘청이는 독일 경제에...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동유럽 독일 경제의 부진이 유럽연합(EU) 소속 동유럽 국가들을 강타하면서 올해 이들 국가가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함

동유럽 내 4대 경제 대국 가운데 0.5% 성장한 불가리아를 제외한 이들 3국의 이 같은 부진은 동유럽이 독일 경제와 얼마나 강하게 묶여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함

이들 국가는 이처럼 해외 수요 약세가 생산의 걸림돌이 되자 국내 소비에 기대를 걸고 있음 독일 경제 둔화가 겹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3) 미국 등 견제에도...독일의 대중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 기록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 견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의 지난해 대중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19억유로(약 17조460억원)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음

이는 유럽 경기 침체와 맞물려 독일의 해외투자 총규모가 급감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4) EU 집행위, 무역협정 발효 시 EU 농식품 수출 수입액 유로 증가 전망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JRC)는 현재 EU가 추진 중인 일련의 무역협정 발효 시 EU 농식품 수출이 31억~44억 유로 증가하는 반면, 일부 민감 섹터의 경쟁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

최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등에서 우크라이나 농산품과 남미 쇠고기 수입에 반발한 농민들의 수입 농산품을 압수 및 폐기 등 시위가 발생

농업계는 EU의 높은 환경 기준이 생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시장 보호를 요구

향후 보호주의적 농업 정책을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는 집행위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

일본

1) 물류 동향

'23년 부산-일본항만 간 물동량 2,859천TEU 기록, 전년 대비 3.6% 감소

- 수출입 1,094천TEU (7.0%↓), 환적 1,765천TEU (1.3%↓)로 전년대비 3.6% 감소
- (수출입) 수입 (일본→부산) 물량 14.7% 하락, 수출 (부산→일본) 6.6% 증가
- (환적) 수입환적(일본→부산) 4.5% 증가, 수출환적(부산→일본) 물량 6.5% 하락
- 반면, 일본항만 총 수출입 물량 중 부산 환적비중은 전년 대비 상승 예상 (1-11월 기준 추정치)
- '22년 기준 日수출입화물의 부산환적 비중은 9.9%였으나, '23년(1-11월)은 10.3%로 소폭 상승
- 일본 93개항 전체 외항물동량 ('23. 1-11월) = 15,760천TEU
- 부산항-일본 환적물동량 ('23. 1-11월) = 1,621천TEU
- * 위 물량은 추정치이며, '23년 일본 총물동량 공식통계는 '24.10월경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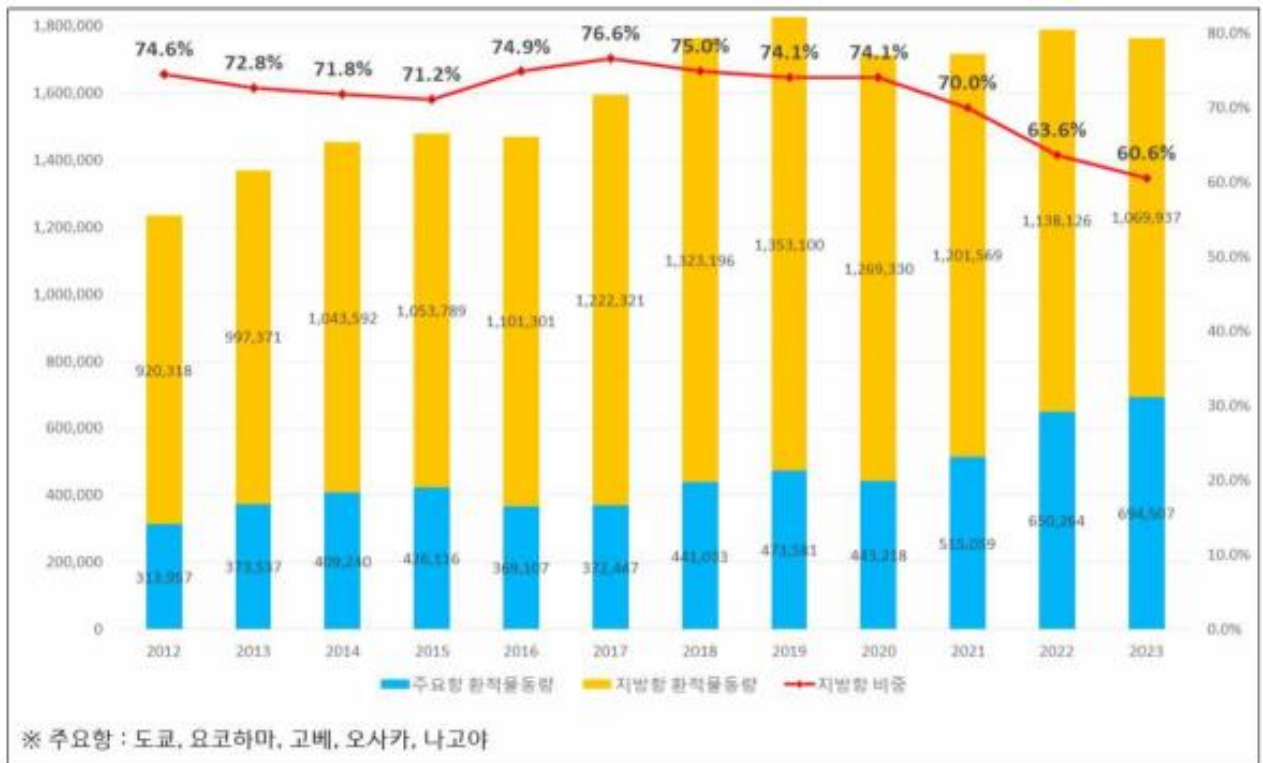


일 본

• '23년 부산항의 일환적물량 중 주요항 대비 지방항 비중감소 (63.6% → 60.6%)

- 부산-日주요항간 환적물량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반면, 日지방항과 환적물량은 6.0% 감소

< 2023 부산항의 일본 환적물량 중 주요항 VS 지방항 물동량 비교 >



1) 지점소식

- 휴일 없음

2) 물류 동향

- 램차방 F항의 해양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PAT 항만청장 Kriangkrai Chaisirwongsuk 은 램차방 항만개발사업(LTC)의 3단계 진행 상황을 확인한 현재 전체 프로젝트 계획인 1.67% 뒤쳐진 17.37%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예상했던 속도보다 지연되었지만 3구역 매립 작업을 예정대로 민간 계약 당사자인 GPC에 인도하기 위해 빠르게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축제 기간처럼 선박 수가 많은 기간의 경우, 램차방 F 부두의 해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수입 또는 수출 선박의 운항이 지연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램차방 F 부두 건설이 빠르게 완료되면 수출입 선박을 더 많이 수용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태국 항만 공사, 방콕항에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태국 항만 공사(PAT)가 현재 방콕항 FREE ZONE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국제 해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프로젝트 중 하나인 Chao Phraya Super Port Project는 수입 물류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서 항구 크기 및 항구 내 서비스의 질을 증진시켜 수입 물류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다.

태국 항만 공사가 추진 중인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입출항 화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수출입 검사, 국제 무역 및 투자 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물동량 증가 및 협력국으로부터의 지역 수운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물동량이 높아진다면 맥스탑 태국 또한 더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물류 동향

- 수완나폼 공항 Interline 창고 내 폭발물 발견

2024년 2월 24일, BKK 내 interline 창고에서는 폭발물로 보이는 화물이 발견되어 일시적으로 X-ray를 중단했다. 이는 당국이 창고 및 공항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추정 화물을 검사해야 했어야 하기에 다른 날보다 다른 날보다 창고에서의 더 붐볐다.

따라서 맥스탑 태국은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하여 기존보다 더 빠르게 화물을 출하할 수 있게 하여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 한 이슈 발생 시 빠르게 고객에게 안내하며 화물들이 문제 없이 핸들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